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12.6~2017.12.1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저잣거리 스님의 '깨달음과 행복' 108편

그래도, 가끔

법현 스님 지음 | 북락 펴냄 | 1만 8천원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역촌중앙시장의 '저잣거리 스님'으로 더 유명한 법현 스님 〈사진〉은,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페이스북 등 SNS 공간도 중요한 도량이요 법당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카친, 스친, 밴친, 페친들과 활발히 소통한다. 시민사회와 종교, 불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어울림 또한 중요한 수행이요, 전법이란 생각을 갖고 각계각층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며 호흡한다. 한국불교태고종 부원장과 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종교인평화회의 종교간 대화위원장을 역임하고, 성공회대서 스님과 함께하는 채플 강의 했으며,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초빙연구원으로 활동중이다. 선(禪)과 농사(農事)와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진정한 불교의 사회적 실천운동이라는 생각에 이웃종교들과도 교류를 자주 가지며, 때로는 승려가 아니라 농사꾼이 되기도 하고, 촛불혁명 때는 촛불이 되어 함께 나섰다. 시장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저잣거리 시장인 역촌중앙시장 2층에 〈열린 선원〉이라는 포교원을 열고, 시장 사람들의 친근한 벗이 되기도 하고 농사를 짓는 등 선농(禪農) 일체의 길을 걷고 있다. 이번에 엮은 〈그래도, 가끔〉은 그동안 카친, 스친, 밴친, 페친들과 소통한 글을 한데 모은 것이다

이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고해(苦海)인 사바세계의 삶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기〉에서부터 시작해, 그 고해의 삶을 〈내려놓기〉, 그 고해의 삶에서 〈벗어나기〉, 그리고 그 고해의 삶과 더불어 〈행복하기〉 등 기승전결의 형태로 구성돼 있다. 법현 스님은 이 네 가지 삶의 형태를 통해 이웃들이 미망과 고통의 삶서 벗어나 해탈과 자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詩) 형식을 빌려 알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게 문학적 장치를 이용해 그동안 자신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이웃들과 소통한 글과 사진을 한데 모아 책으로 묶었다.

그 때문일까? 이 책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법현 스님의 가슴에 어머니처럼 항상 살아 숨 쉬는 모성(母性)과 자비로서의 언어와 메지지이다.

법현 스님은 실제로 모시고 사는 팔순 노모의 언어(전라남도 언어)를 빌려 정감 넘치면서도 따뜻하게 이웃들에게 '눈(眼) 잘 덮어서 보리(菩提)싹 잘 자라게 하거라'라며 깨달음과 삶의 행복론을 해학적으로 동시에 전한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겨울철 작물인 '보리'를 깨달음의 '보리(菩提)'로 승화시키며 삶의 애한과 고통을 순식간에 따뜻한 행복과 깨달음의 경지로 치환시킨다. 스님의 이러한 잠언적인 행복론과 깨달음의 메시지는 종교와 계층을 뛰어넘어 이 세상 전체로 관통한다. 먼저 1부 〈바라보기〉 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주 상식적이고 평범한 노래가 법현 스님의 해학과 혜안을 거쳐 부지불식간에 우리들을 깨달음과 행복의 세계로 안내한다.

"열차가 멈출 때 앞으로 쏠리던 몸이 떠날 땐 뒤로 젖혀지거나 출렁거리는 배 위에서 멀미를 하는 까닭은 겉과 속이 따로이기 때문이다/쏠리지도 젖혀지지도 않고 멀미도 잡으려면 약보다는 앞과 뒤, 겉과 속이 하나 되는 마음을 먼저 먹어야 한다" 〈관성과 멀미〉 中에서

또한 제 2부 〈내려놓기〉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익살적인 이야기 시로 어리석음서 깨어나지 못하는 중생들에게 자유와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전해준다.

"산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딘 장님이 굴러굴러 내려오다 어찌어찌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 붙잡고 매달렸다/두 손을 철봉 잡듯이 꼭 잡고 매달려 살려달라고 주위를 향해 소리쳤다/ 한참을 그렇게 살려달라 소리치며 매달려 있으니 기운은 빠지고 곧 나무에서 손을 놓칠 것 같아서 무서웠다/ 천길 낭떠러지일 것이기에/ 다행스럽게 사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길래 더 크게 소리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고요한 소리로 말했다. "손을 놓으시오/장님은 그러면 죽을 텐데 왜 그리 모지냐면서 울음으로 애원했으나 행인은 손 놓으라는 소리만 하고 가버렸고 힘은 다 빠져버렸다/이제는 죽었구나 하며 나무를 잡은 두 손에 힘이 빠지며 놓쳤는데 떨어져보니 금세 발이 땅에 닿았다/눈에 보이지 않아 무서워서 오그린 탓에 다리가 땅에 닿지 않았던 것이다/그 누구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다. 손을 놓는 것이 살 길일 수 있다. 놓으라고 손을 놓으라고 그럼 살 수 있다고 내게 말해주는 이 있는가?"

〈손을 놓으면 산다오〉 中에서

제 3부 〈벗어나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설의 시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타를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제 4부 〈행복하기〉에서는 이러한 삶의 단계(수행 과정)를 거쳐 행복의 진정한 얼굴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재치 있는 익살과 해학의 언어로 중생들의 그 몽매한 마음을 깨우쳐준다. 이처럼 이 책에 수록된 108편의 노래와 시는 법현 스님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중요한 법당이요 전법도량이라 생각하고, 익명의 독자들과 함께 직접 소통한 내용을 한데 묶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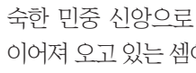
법현 스님이 머리말에서 밝힌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어디서부터나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손수건 같은 책이 되기를 바'란다는 바람과 함께 '한 꼭지 읽고 창밖을 한 번 바라보고, 또 한 꼭지 읽고 창밖을 한 번 바라보는 것은 어떨는지요?'라고 반문하는 모습이 가슴 가득 연꽃처럼 피어나는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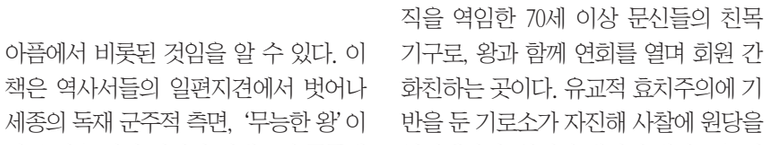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왕실 불사의 흔적은?… 왕실 사찰 '원당'

원당, 조선 왕실의 간절한 기도처

탁효정 지음 | 은행나무 펴냄 | 1만 7천원




내원당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창덕궁 후원.

"시대의 마음을 읽는 것이 역사를 통찰하는 가장 쉽고 재미있는 길"이라는 저자 탁효정의 〈원당, 조선 왕실의 간절한 기도처〉는 왕 중심의 조선사 뒤에 가려진 왕실 여인들의 지성스런 불사를 소설처럼 생생히 재현한 일종의 역사책이다. 한낱 투기와 가십의 소재에 불과한 왕실 여성들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옛 사부대중의 자생적 개혁 의지와 지혜를 보여준다.

원당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간절히 비는 집'이다. 조선 왕실 사람들은 절을 짓고 그 안에 위패나 초상화를 모셔 자신만의 소원을 담은 공간을 만들었다. 주로 죽은 부모나 남편, 요절한 자식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건축된 원당은, 조선 중기에 접어들면서 아들 회임을 발원하는 기도처의 성격을 띤다. 불교의 구도적 성격에 기복 신앙이 더해지고, 세종의 한글 창제로 불경이 대중화되면서 불교는 명실상부한 민중 종교가 되었다. '원당'이라는 말 자체는 낯설지만, '명당'이라던가 '영험한 기도처'란 익숙한 민중 신앙으로 지금껏 그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는 셈이다.

이름 없는 무장에 불과했던 이성계가 역사상 가장 견고한 왕조라 평가받는 조선을 건국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얼까? '상갓집 개'라는 하찮은 별명으로 불렸던 왕실의 먼 친척 흥선대원군이 권력 최상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신화와 같은 역사의 이면에는 '천하 명당'이 있다. 명당에 부모의 묘를 이장하거나 절을 세우고 성심으로 기도한 끝에 뜻을 이루는 것이다. 조선왕조사를 따라 명당을 읊다 보면 선조부터 순종까지 왕을 열넷이나 배출한 길지 동작동 화장사(현 국립현충원)가 등장한다. 중종의 후궁 창빈 안씨를 이곳에 모셔 손자 하성군이 선조가 되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묻혀 그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되었으니 왕을 배출하는 곳은 확실한 듯하다. 하지만 저자는 이 '명당'에 얽힌 아이러니들도 놓치지 않고 언급한다.

원당을 이해한다는 것은 명당을 파악하는 것과 같다. 이는 곧 명당을 애타게 찾았던 그 시대의 간절한 기도, 그 욕망과 아픔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폭군' 연산군과 광해군, '팜파탈' 조귀인과 장옥정, '국모' 명성황후 등 흔히 우리가 친숙한 별명을 붙여 부르는 왕실 사람들과 그 원당에 얽힌 사연들을 보면 그 호칭이 후대의 역사관, 즉 현재의 욕망과 아픔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역사서들의 일편지견에서 벗어나 세종의 독재 군주적 측면, '무능한 왕'이란 오명을 벗기 시작한 광해군의 콤플렉스, 공포정치를 펼쳤던 세조의 선업(善業) 등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본다. 그런가 하면 조선 시대 여성을 다룰 때마다 겪게 되는 고충도 털어놓는다. "여자가 사람이 아니었던 시대,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적 의미와 인간의 존엄성을 찾"는 일이 마치 목이 좁은 유리병에서 자란 새를 꺼내는 일 같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500년 역사를 가능케 했던 것은 어둠 속에서 촛불을 밝히고 치성을 올린 왕실 여성들의 불심이었고, 또한 역으로 500년간 이어져 온 왕실 불교는 왕실의 여성들이 막막한 삶 너머 내세를 상상하며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영겁회귀의 삶과 욕망, 죽음과 참회가 원당에 오롯이 깃들어 있다. 저자는 "한 사찰의 역사에는 수많은 인연과 수없는 마음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하나의 인드라망을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사찰 원당에 깃든 왕실 사람들의 기도에서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닌 이치를 깨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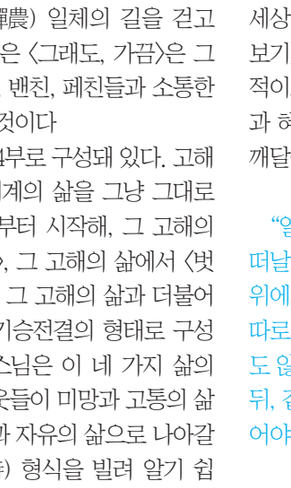
현재까지 온전히 남아 있는 원당은 그리 많지 않다. 불교에 반감을 지닌 조선 유학자들의 방화와 잦은 외침, 일제강점기의 문화 정책, 한국전쟁에 의해 수많은 불교 유산들이 전소 및 훼손되었다. 원당의 원형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곳은 의성 고운사의 연수전이다. 영조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이 건물은 특이하게도 사찰 전각이 아닌 유교식 사당 형태로 건축되었다.

기로소(耆老所)는 정이품 이상의 관직을 역임한 70세 이상 문신들의 친목 기구로, 왕과 함께 연회를 열며 회원 간 화친하는 곳이다. 유교적 효치주의에 기반을 둔 기로소가 자진해 사찰에 원당을 설치했다니, 왕비나 대비의 내탕금을 털어 예산을 마련한 조선 초중기의 원당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는 조선 후기의 불교가 더 이상 배척이 아닌 공존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진왜란 당시 전투에서 승군들의 활약과 전쟁 복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불교의 사회경제적 기여를 인정한 것이다. 게다가 주자학 이데올로기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불교를 견제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은 승려들과 지적 · 문화적 교류를 확대해 갔고, 불교계 또한 유교와의 융합과 공존을 위한 접점들을 모색했다. 원당을 이해한다는 것은 조선의 역사를 다르게 보는 하나의 창을 내는 것과 같다.

김주일 기자

현밀과 삼승의 모든 지혜를
포괄하고 있는 보석과 같은 가르침!

문수진실명경 역해



티베트불교에서 종파를 떠나 모든
수행자들이 수지 독송하는 경전!

네팔에 머물며 수행과 티베트 경론 번역에 힘쓰고 있는 중암 스님이 인도와 티베트 주석서들을 참조하여 방대한 설명과 각주를 달았다.

중암 선혜 역주/신국판 양장/752쪽/값 35,000원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동두천 작은 절, 광명스님이 전하는 행복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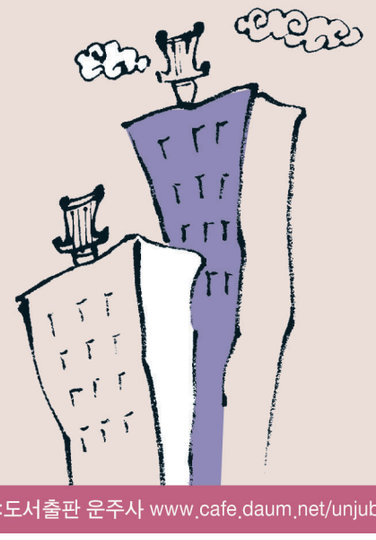


행복도 불행도 저절로 오지 않는다!

소박하고 소탈하고 정겹고 사람 냄새 나는 곳, 무심정사 사람들의 이야기

읽는 이들을 저절로 미소 짓게 만드는 이야기,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광명 지음/국판 무선/240쪽/값 1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